

광주시, 도심 음악축제 '사운드파크페스티벌' 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도심 속 대표 야외 음악축제인 '2025 광주 사운드파크 페스티벌'을 오는 9월6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사직공원 일대에서 개최한다. '광주 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여는 도심 속 소풍 분위기의 음악축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는 '숲속에서 만나는 사운드트립'을 주제로 어쿠스틱 인디, 록 밴드, 재즈 등 밴드 기반의 라이브 공연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기간에 열리는 무료 공연으로, 광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9월6일 오후 4시부터 사직공원 일대서 무료 음악축제
체리필터·프롬·이관우 켈릿 등 국내외 뮤지션 무대에
푸드존·미디어아트도... 음악·음식·야경의 어울림 만끽

있다. 출연진은 데뷔 25주년을 맞은 대표적 록밴드 '체리필터', 서정적인 감성과 몽환적인 음색의 자작가수 '프롬',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대상 출신 '김승주', 팝과 록을 아우르는 밴드 '맥거핀'이 공연한다. 또 광주음악장차소 뮤지션인인디 아티스트 'Leslie', 알앤비(R&B) 아티스트 'damse', 재즈 밴드 '이관우 켈릿'도 무대를 꾸민다. 인근 음악산업진흥센터에서는 식품

구역(푸드존), 벚꽃시장(플리마켓), 기획 행사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된다. 공연 이후에는 사직공원 내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사직 빛의 숲'과 '전망타워 라이트 쇼'를 함께 즐길 수 있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음악·미술·야경을 아우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신화 콘텐츠산업과장은 "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광주 음악산업을 키워낸 뮤지션들이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대표 공연"이라며 "많은 시민과 관



광객이 함께 즐기며 광주만의 음악적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전남도립도서관, 9월 독서의 달 전시·공연·체험 풍성 지혜의 숲 도민강좌·민화 특별전·철학으로 시대 해석 특강

전라남도립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도민의 독서문화 향유를 위한 특별 전시와 강연,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복합문화행사를 마련했다. 독서문화 행사의 경우 '제253회 지혜의 숲 도민강좌'가 연말까지 운영된다. 하반기 첫 강연은 9월 4일 김동우 사진작가를 초청,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잊힌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의 사진과 함께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사를 소개한다. 또한 '구리기네 독서클럽', '꼬물꼬물 책 놀이터', '픽셀 위의 꿈, 우리는 디지털로 잉 루키지', '어른이 된 나를 위한 그림일기', '나와 아이를 위한 부모교육', '그림책 원화 전시' 등을 포함한 총 14개 프로그램이 9월 한 달 동안 흥미롭게 진행된다. 독서의 달에 가장 인기가 많은 특별전시와 체험행사로 9월 2일 오프닝은 목포 민화연구회 작가와 회원들의 초청 전시 '도서관, 민화 속에 스며드는 책과 만나다'가 30일까지 펼쳐진다. 29일에는 '철학으로 시대를 해석하다'라는 주제로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새로운 K-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생한 대한민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철학으로 풀어낸다. 이 밖에도 새로 오픈한 문화마루에서도 다양한 '도서관 주제전시'와 연체 도서를 모두 반납 시 즉시 대출 정지를 해제해주는 '연체자 특별 해제행사'도 진행한다. 조병섭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도민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를 통해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고 독서인구가 확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립도서관 누리집(lib.jeonnam.go.kr)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및 신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061-288-5235)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경 기자

강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사업'으로 선보이는 마지막 작품인 극단초인의 '스프레이'가 관람객 판매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스프레이'는 3D 디지털 매핑과 움직이는 무대 연출, 역동적인 연기로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베스트 디렉터상, 베스트 테크니컬 프로덕션상 등 2관왕을 거머쥔, 2025년 가장 기대되는 강진아트홀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다. 대공연장 전 객석을 동시 판매했던 지난 공연들과는 달리, 강진아트홀과 극단초인은 관람객들의 무대경험 극대화를 위해

강진서 만나는 올해 최고의 화려함, 연극 '스프레이'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아시안 아츠 어워드 2관왕 쾌거
최우수 연출상, 최우수 기술상으로 예술성, 작품성 확인
3D 매핑, 움직이는 무대 연출 역동적인 연기 '오감만족'

총 326석만을 오픈하며 오후 2시, 5시 2회 공연을 통해 관객이 더욱 실감나게 공연을 관람하도록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국비 사업 통해 '스프레이'와 같은 우수작품을 강진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미술적 공간 변화, 시각적 아름다움, 다채로운 움직임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번 작품을 통해 강진군민

의 문화 향유 다양성과 문화 경험이 확장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본성, 유희와 억압의 주제를 통해 그려내며 다이나믹하게 그려낸 기술융복합 연극 '스프레이'는 오는 20일 상연되며, 입장권은 NOL티켓 누리집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강진/손경설 기자



2025.09.20. (토) 14시, 17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9월 한 달 간 동구구립도서관 책정원에서 시민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1인 인형극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유아) ▲책정원 속 작은 정원, 그림책 힐링 원예(아동) ▲피마 테라리움 숲(누구나) 등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 잡지 과월호 '더드림', 졸업도서 '나눠드림', 인생샷 '남겨드림', 북술랭 '골라드림' 등 '드림'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9월 27일에는 광주시립도서관과 연계한 '도서관·인·BOOK' 사업을 통해 '용기 로봇의 비밀'을 쓴 이육재 작가의 강연과 공연을 선보이며,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책정원, 강연 등 행사 다채

'독서의 달' 맞아 9월 한 달간 강연·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는 말을 쓴 배애송 작가의 강연, 초록술사 이형우 미술사 공연 등이 예정되어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자세한 일정 및 세부사항은 광주동구도서관 누리집 및 전화(☎062-608-4722)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독서의 달 행사

는 책을 매개로 한 문화 체험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 고, 정서적인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 했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독서의 달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함께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철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2025년 9월 독서의 달 행사

'책과 가까워지는 시간'

공연	강연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인형극]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9월 27일 14시, 17시) [아동] '용기 로봇의 비밀' (9월 27일 14시, 17시) [유아]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다' (9월 27일 14시, 17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서] 배애송 '말의 숲' (9월 27일 14시, 17시) [초록술사] 이형우 '초록술사' (9월 27일 14시, 17시) [북술랭] '골라드림' (9월 27일 14시, 17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인형극]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무' (9월 27일 14시, 17시) [아동] '용기 로봇의 비밀' (9월 27일 14시, 17시) [유아] '마음과 마음이 주고받는다' (9월 27일 14시, 17시)

구례군, 9월 독서의 달 맞아 특별한 책의 향연 펼친다

전남 구례군은 오는 9월 한 달간 구례군매천도서관에서 '2025 독서의 달 특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5 구례 책축제'와 연계해 군민이 책을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마련됐다. 단순히 책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책을 매개로 한 예술·체험·전시 활동이 이루어지며 구례만의 독자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2025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쓴 최은영 작가와의 만남이 주요 행사로 마련돼 눈길을 끈다. 매천도서관 햇빛마루에서는 그림책 원화(일러스트) 전시가 진행돼, 동화 속 이미지의 아름다움을 통해 감성적 독서 체험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 글쓰기 교실 수강생들의 창작 작품 전시도 마련돼, 지역민들

의 문화적 성장과 성취를 공유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이 밖에도 주민 참여를 고려하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도서를 대출 할 때 책 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깜짝 이벤트는 도서 이용의 즐거움을 더할 전망이다. 아울러 도서 장기 연체자에 대한 대출 정지 해제 조치, 오래된 정기간행물 나눔 행사 등도 함께 운영된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매천도서관 (061-780-8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독서의 달 행사는 군민이 책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사회와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많은 군민들이 매천도서관으로 발걸음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보다나인 농어촌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